

# 新年辭

강 동 석 (한국양회공업협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丁亥年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회원사 사장님과 임직원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업계는 대내외의 어려움속에서도 시멘트 내수에서 4,840만톤을 기록, 전년대비 4.5%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비록 최근 정점이었던 2003년의 5,830만톤과 비교시 83% 수준에 머물렀으나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업계 전체가 온 힘을 다해 일군 뜻깊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시멘트 산업은 각종 대체재와 수입 시멘트 등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시장 구도의 변화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雪上加霜'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부진과 시황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업계의 과당경쟁이 가열되고, 최근에는 시멘트 산업에 대한 '환경문제'까지 제기되어 업계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금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분당면적의 17배를 상회하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 개발사업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기조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전환하는 등 우리 업계로서는 긍정적인 여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시멘트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 극복을 위해 협회가 업계와 함께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멘트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과 시멘트 산업의 기여에 대하여 정부, 언론, 학계,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시멘트 산업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멘트 산업의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더욱 강화가 예상되는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물질 규제라든지 품질 문제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업계의 수용태세를 갖추고, 한편 정부 관계 요로에 시멘트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조성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시멘트 사용 확대라든지 초고강도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토목·건축재로서 시멘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산·관·학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바 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협회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등 각 회원사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종합하고 활용하여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우리 업계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 공동의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자리를 함께 하신 각사 최고 경영자와 임직원의 지혜와 용기로써 업계의 위기 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멘트 산업과 업계의 장기 발전 기틀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사장님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장님들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